

태풍·폭염 '재난과 전쟁'...기업유치·일자리 창출 총력

김영록 전남지사 취임 한달 격의없는 소통으로 조직 안정 시·군 긴급폭염대책본부 운영 도민 생명·안전 중시

김영록 전남지사는 취임 한 달간 '재난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만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고 있다는 의미다.

김 지사는 태풍 뿌리베론 북상에 대비 2일 취임식을 취소하고 곧바로 재난대비 태세에 들어갔다. 다행히 태풍을 비껴갔지만 이번엔 사상 유례없는 폭염이 공격, 연일 촉리와 양식장 등 재난 현장에서 폭염과 싸우고 있다.

김 지사는 22일째 폭염이 지속된 1일 도청 정철실에서 '도·시군 폭염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생각하고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시·군에 부단체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긴급폭염대책본부'를 이날부터 운영, 일일 상황점검 및 관리체제를 가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민선 7기 최우선 순위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취임 후 첫 결재도 '에너지밸리 1000개 기업 유치'와 '주포스코ESM과 투자협약' 서명이었다.

일자리와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한 광복 행보도 눈길을 잡았다. 김 지사는 취임 이전 당선인 신분으로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등 주요 장관들을 만나 지역 현안 사업과 국고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조직 개편도 일자리 만들기 초점이 맞춰졌다. 여기에 전남 당면 현안인 인구 문제가 추가됐다.

그는 일자리 정책과 투자유치 조직을 본부(일자리정책본부) 단위로 격을 올리고,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할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했다.

또 190만명 붕괴 후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인구 문제 대처를 위해 '인구청년정책관'을 준국장급으로 신설, 인구 감소와 청년실업 문제, 귀농·귀어·

귀촌인과 외국인 지원 등을 담당하게 했다. 분야별 지역 인재 양성을 주도할 '희망인재육성과', 자연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섬해양정책과'와 '산림휴양과'를 새로 뒀다.

조직이 정비됨에 따라 조만간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근평 순위 위주로 인사를 하되, 누가 봐도 열심히 한 직원은 발탁하겠다"며 "이는 조직의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임 한달 김 지사는 조직의 안정을 추구했다. 직원들과 격의없이 소통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보

고나 회의, 과잉의전 등을 하지 말라고 했다.

소통정책의 하나로 도청 홈페이지에 '전남 도민청원' 창구도 개설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벤치마킹해 전남도민 500명 이상이 동의한 온라인 청원이 있으면 20일 이내에 도지사가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직원들이 눈치보지 않도록 3~6일 휴가를 떠난다. 이 기간동안 다른 지자체 우수 관공지를 둘러볼 계획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 폭염 대처 점검회의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일 오전 도청 정철실에서 열린 '전남도·시군 합동 폭염 대처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로당 난방비 등 추가 지원 전남도 폭염피해 최소화

연일 40도 안팎의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전남도가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 및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용수개발사업비 긴급 지원 등에 나섰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도 실국장과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폭염 대처상황 점검 회의를 가졌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시·군에 부단체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긴급폭염대책본부'를 이날부터 운영해 일일 상황점검 및 관리체제를 가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용수요가 많은 경로당 등 무더위 쉼터의 경우, 운영시간을 현재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연장토록 하고, 이에 따른 냉방비 부족분 1억370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앞서 폭염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비 국비 6억원을 확보해, 시·군비 1억 원을 포함한 총 7억 원을 긴급 투입했다.

이 사업비는 물 공급이 어려운 발작물 중심으로 관정개발과 뚝방설치, 임시급수시설, 살수차 운영 및 이동식 스프링클러 설치 등에 쓰이게 된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현재 광주지역 온열환자는 남성 49명, 여성 19명 등 총 68명이며, 이중 4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전남지역은 지금까지 195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해 이중 2명이 숨졌다. 가축폐사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나주와 영암, 곡성 등 축산농가 337곳에서 닭과 오리, 돼지 등 55만7000마리가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폐사했다. 피해액은 23억1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공사 경영평가 5년 연속 '가' 등급

광주지역 공기업들 약진

광주지역 공기업들이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지난해 가장 실적이 좋은 '가' 등급으로 선정됐다. 광주도시공사는 경영실적은 전년도와 같은 '다' 등급이지만 전년도 12위에서 8위로 올라섰으며 특히, 고객만족도 부문에서는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최고점수를 받았다. 광주환경공단도 '다' 등급에서 '나' 등급으로 상승했다. 반면, 전남개발공사는 여전히 하위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올해는 전년도 보다 평가등급이 한 단계 추락했다.

행정안전부는 광주 6개, 전남 9개 등 전국 241개 지방공기업에 대상으로 2017년도 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가치(공공성)와 수익성의 조화 노력,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 경영 이행 여부에 중점을 뒀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최고등급인 '가'부터 최하등급인 '미'까지 5개 등급으로 나뉜다.

평가 대상 광주 공기업은 광주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환경공단, 광주 하수도, 광주 광산구 시설공단 등 6곳이다. 전남은 전남개발공사와 하수도 공기업을 운영하는 나주·순천 등 모두 9곳이다.

평가결과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지역에서는 유일

하게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5년 연속 받았으며, '나' 등급에는 광주환경공단 한 곳만 올랐다.

지난해 평가에서 '나' 등급이었던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올해 한 단계 더 올라섰고, 광주환경공단도 '다' 등급에서 상승했다. '다' 등급에는 광주도시공사·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하수도 공기업이 포함됐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해와 평가등급이 같았으며, 김대중컨벤션센터는 '라' 등급에서 한 단계 올랐다. 광주도시공사의 경우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는 90.37점으로 전국 도시개발공사 부문 최고점수를 기록했다.

전남개발공사는 '라' 등급을, 광주 광산구 시설공단은 '미' 등급을 받아 전국 최하위등급에 머물렀다. 지난해 '다' 등급이었던 전남개발공사는 올해 한 단계 추가 하락하면서 전국 중·하위권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에게는 평가급이 차등 지급된다. 최하위등급인 '미' 등급을 받은 지방공기업 임직원은 평가급을 받지 못하며, 해당 기관 사장과 임원의 연봉은 전년도보다 5~10% 삭감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임기 중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연임시킬 수 있다. 경영평가결과는 지방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cleaneye.go.kr)에 공개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지난해 열린 '광산구의회 여름방학 어린이 모의의회' 사진.

광산구의회 초등학교 대상 '어린이 모의의회' 연다

9~10일 4차례 개최

광주 광산구의회가 초등학교와 기초의원원 함께 하는 '어린이 모의의회'를 개최한다.

광산구의회는 광산구 관내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총 4차례에 걸쳐 '2018년 여름방학 어린이모의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정지야 놀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모의의회는 여름방학을 맞아 의회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배우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안전상정과 찬반토론 등 교실 밖 민주주의 체험으로 성숙한 민주시민의 의식을 함양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가 학생들은 의회 본회의장에서 실제 회의 진행방식과 동일한 개회식과 안전 처리 등 모의의회를 체험하게 된다. 여기에 의원실과 회의장 견학, 의원과 만남의 시간 등도 경험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은 광산구의회와 광산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팩스(062-960-3741)나 메일(choihyejin@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배홍석 광산구의회 의장은 "모의의회는 어린이에게 지방자치 체험을 통해 의회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체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8·15 광복절기념

제4회 너릿재 옛길 혹서기 마라톤대회

2018년 8월 12일(일) 오전 8시 출발

접수 및 문의 ☎(061) 375-1288 <http://marathonworld.kr/>

장소 너릿재 옛길(화순 ~ 광주 동구 구간 4.2195km)
출발 너릿재 옛길 주차장(화순 소야르 갤러리 앞)
코스 화순 소야르 갤러리~너릿재~너릿재 옛길 주차장(광주 동구)
종목 풀(5회왕복), 25km(3회왕복), 8.5km(1회왕복)
참가비 25,000원
접수인원 선착순 500명(입금기준)

주최 | 광주일보 · 마라톤세상 주관 | 화순군육상협회 · 마라톤세상
후원 | 화순군 · 화순군의회 · 화순군체육회 광주광역시 동구